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애나 정**  
President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40주년, 주지사 등 정치인 대거 참석



태권도복 입은 댄 맥키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5월 17일 그리니치 고교 체육관에서 열린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대회 개막식에서 명예단장을 수여받기 위한 필수 요소인 승판 격파를 성공한 후 관중들의 박수 환호에 즐겁게 답하고 있다. 바로 옆은 격파 요령을 설명한 흥진섭 관장

맥키 주지사, 매거지너 연방 하원의원, 시코니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흥진섭 관장, “브라운대서 출발한 태권도 대회 불과 엇그제 같아” 감회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잇는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40주년을 맞은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가 댄 맥키 주지사 및 정치인들을 비롯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잇는 지역 전통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대회였다. 흥스 월드클래스 태권도센터의 주최로 5월

### 〈전체 기사 읽기〉

17일 이스트 그리니치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개막식에서 흥진섭 관장은 “1984년 브라운 대학교에서 열렸던 첫 태권도 대회가 바로 엇그제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흥 관장은 댄 맥키 주지사, 이강원 평통 보스

턴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승패에 관계없이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챔피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고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나누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대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대회의 사명을 분명히 했다.

댄 맥키 주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키우는 청년 남녀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태권도 수련이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과거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농구코치로 챔피언전까지 이끌었던 경험도 소개했다. 맥키 주지사는 물론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도 농구선수 출신이다.

이날 40주년을 맞은 태권도 대회에는 표창장 전달이 줄을 이었다. 맥키 주지사는 흥진섭 관장과 그의 두 아들인 크리스, 클레이 흥 사범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세스 매거지너 연방하원의원과 프랭크 시코니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표창장을 전달했다.

자신이 4살, 2살 아이들의 아빠라고 밝힌 세스 매거지너 연방하원 의원은 “태권도를 통해 자기 절제와 자신감,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거지너 하원의원은 “▶▶4면으로 계속

## 시총 1위 엔비디아, 보스턴서 점차 존재감 확대... 양자컴퓨팅이 핵심

큐에라·커먼웰스 퓨전 등 매사추세츠 기업과 잇단 협력, 8개 스타트업 투자  
보스턴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AQC)' 올 하반기 가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이 양자컴퓨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시총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가 특유의 협력 형태를 통해 매사추세츠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BBJ)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 달 사이 보스

턴 지역 대표 기업들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CFS), PTC, 큐블록스(Qblox) 등과 잇달아 협력 관계를 맺었다.

앞서 엔비디아의 벤처투자 부문 '엔벤처스(NVentures)'는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분야의 매사추세츠 스타트업 최소 8곳에 2021년부터 투자해왔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보스턴 진출을 확대한 배경에는 양자컴퓨팅이 있다는 것이 BBJ의 설명이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양자컴퓨팅 기업 큐에라 컴퓨팅(QuEra Computing)과 보스턴에 새로운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이미 운영 중인 매사추세츠 웨스트포드 사무소와는 별개의 시설이다.

엔비디아의 매사추세츠 확대는 긍정적 신호다.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긴 이 회사는

### 〈전체 기사 읽기〉

AI 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혁명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자로서 사실상 판세를 좌우하고 있다. 회사 이름 자체도 '시그시'를 뜻하는 라틴어 '인비디아(invidia)'에서 유래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엔비디아의 보스턴 진출과 관련해 학계와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그레이터 보스턴의 인재 ▶▶10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민협회 시빅인턴 기금 마련 코미디 나잇 참가 기부금 최소 \$75로 낮춰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KACL-NE)가 오는 6월 6일 개최하는 ‘영리더스 장학 스탠드업 코미디 나잇’의 권장 입장료를 최소 75달러로 낮췄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퀸지(Quincy) 소재 애덤스인(Adams Inn)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협회가 운영해온 ‘시빅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만찬으로 행사 호스트는 지미 랑 JP 후지 그룹 회장이 맡는다.

올해 행사는 다양한 푸드 벤더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지난해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한국계 코미디언 헬렌 홍이 다시 한번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오른다. 석양 바비큐 디너와 유료 바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시민협회는 올해 행사를 정식 티켓 판매가 아니라 자율 후원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소 후원금을 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최근 유가 급등 등 생활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시민협회 측의 이야기다.

시민협회는 시빅 참여 인턴십을 한국 정부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해당 지원이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한인사회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올해 21명의 지원자 가운데 6명의 인턴이 선발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KACL-NE는 150명이 넘는 한인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왔다”고 밝혔다.

시민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만 5천 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금액은 대학생 인턴 2명, 고등학생 인턴 4명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챔피언 회장은 “한인 2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더 큰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동포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



”고 말했다. 후원 권장액은 75달러, 125달러, 250달러, 500달러, 1천 달러이며, 수표는 KACL-NE 앞으로 발행해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로 보내면 된다. 벤모를 통한 후원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또는 다음 링크 (<https://account.venmo.com/u/kac-line>)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에서 열린다.

#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 뉴욕 왕복 22만5000원 인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월부터 소폭 내려간다. 5월 사상 처음으로 최고단계인 333단계가 적용됐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 1일부터 27단계로 낮아진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일본·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5월 15만원에서 6월 12만 3000원으로, 미국 뉴욕이나 애틀랜타 등 장거리 노선은 112만 8000원에서 90만 3000원으로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뉴욕 등 장거리 노선에 왕복 90만 원대 유류할증료가 붙는 등 여행객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항공 등 업체가 부과하는 추가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0-3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6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0.02센트로 집계됐다. 5월 적용 기준인 갤런당 511.21센트보다 약 20% 낮아지면서 유류할증료도 함께 내려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컸던 2022년 7-8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2단계였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6월 출발 항공권이라도 이달 안에 발권하면 5월 유류할증료가 붙고, 다음 달 발권하면 낮아진 6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한국에서 발권할 때 적용되며 미국의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 발권시 적용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대신 미국 발권대 한항공 가격은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국에서 발표하는 제트 연료의 USGC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SPOUL SOULONGTANG

##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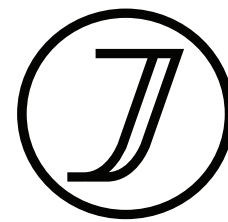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40주년, 주지사 등 정치인 대거 참석

▶▶1면에 이어서

연방하원이 태권도 대회 40주년을 축하하며 특별 공로장을 전달한다" 며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코니 주 민주당 원내대표도 표창장을 전달하며 특히 지난 40년 동안 1천명의 검은띠 유단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진섭 관장은 답례로 댄 맥키 주지사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했다. 맥키 주지사는 태권도복을 입고 홍 관장의 지도를 받아송관을 격파했다. 관중들은 주지사의 태권도계 입문을 큰 박수로 환영했다.

개회식에 이어 바로 진행된 태권도 시범단 단체전에서는 한미 태권도가 화려한 태권도 동작과 활기 넘치는 격파로 1위를 차지했다. 챔피언스 마살아트가 2위, 웨스트포드 월드클래스마살아트가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대회는 1984년 브라운대학교에서 '오픈 마살아트 선수권 대회'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다. 초기에는 태권도 도장이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다양한 무술 종목이 함께하는 대회로 출발했으나 이후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지며 현재는 로드아일랜드를 대표하는 태



(위) 태권도대회에 참여한 세스 매거지너 연방 하원의원, 홍진섭 관장, 댄 맥키 주지사, 프랭크 시코니 R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원 평통 보스톤협의회 회장. (아래) 단체 시범전에서 1등을 차지한 한미 태권도팀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권도 행사로 성장했다. 이 대회는 격년으로 보스톤총영사관배 형식으로 열리며 한국과 미국 주류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태권도를 제외하고 전미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와 오클라호마 한무관의 오클라호마 인비테이셔널 등이 대표적 장수 태권도 대회로 꼽

힌다.

## 보스톤 5월 19일 사상 최고 온도 기록

봄철 폭염 2일째 지속, 스프링필드는 3일 연속 90도 넘겨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5월 중순 보스톤과 지역 일원의 낮 최고온도가 90도를 훨씬 초과하면서 5월 19일 기준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보스톤 한 곳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각 지역,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그리고 버몬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일 기준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보스톤은 오후 2시 9도를 기록하면서 76년전 기록했던 90도를 훨씬 뛰어넘었으며 봄철 온도로는 사상 두번째 더운 날 동물을 기록했다.

이날 최고 온도를 기록한 곳은 레딩, 로웰, 밀턴, 뉴턴, 프레밍햄, 내틱, 윌폴, 스프링필드, 웨스트필드, 그린필드, 노스햄튼, 피츠필드 등이었다.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메인의 포틀랜드, 뉴햄프셔, 맨체스터, 키니와 버몬트의 벌링턴도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최고온도를 기록한 봄 날이다.

- 97 degrees — May 26, 1880
- 96 degrees — May 19, 2026, 1944, 1929, 1880
- 95 degrees — May 2017, 1979, 1930, 1914
- 94 degrees — May 2013, 2010, April 1976, 1931, 1929, 1896.

hsb@bostonkorea.com



#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MART DENTAL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HOSTED BY JIMMY LIANG OF JP FUJI GROUP  
YOUNG LEADERS SCHOLARSHIP

# STAND-UP *Comedy Night*



venmo



PERFORMANCE BY

## HELEN HONG

SATURDAY, JUNE 6, 2026

DOORS OPEN @ 5:00 P.M.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

**KOREAN COMMUNITY SPECIAL ADMISSION : SUGGESTED MINIMUM \$75**

**PAYABLE TO : KACL-NE,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

**SUNSET BBQ DINNER & CASH BAR**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 '2026 봄맞이 바베큐 파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2026 봄맞이 바베큐 파티' 를 라즈 앤더슨파크(Larz Anderson Park) 에서 지난 1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어른과 아이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함께해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맛있는 바베큐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다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졸업 후 타 도시로 떠나는 동문들을 위한 송별 시간도 마련됐다. 동문회는 떠나는 동문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자고 격려했다.  
 백현일 회장은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알게 되고 서로를

**〈전체 기사 읽기〉**  
 더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고 하며 "이 작은 네트워크의 씨앗들이 미래에 풍성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작년 숨은 동문 찾기 캠페인 이후로 동문회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열정도 뜨겁다는 평가다.  
 백 회장은 "기쁨은 나누어 두배로 만들고 슬픔과 어려움은 나누어 절반으로 만드는, 언제나 진정한 같이 편안한 동문회가 되겠다" 며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도 다음 가을 바베큐 모임에는 함께해 더욱 풍성한 만남의 시간을 나누길 기대한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에 참가를 원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newenglandyonsei@gmail.com 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FC 레드브릭스 주최 'Boston Cup 2026 — Korean Women's Friendly', 5월 30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여성 축구팀 보스톤 레드브릭스가 주최하는 한인여자친선 2026년 보스턴컵 경기가 오는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보스톤 대학교 니커슨 필드 (Boston University Nickerson Field)에서 개최된다.  
 공식 명칭이 'Boston Cup 2026 — Korean Women's Friendly' 인 이번 대회는 보스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 축구팀 FC 레드브릭스(Boston FC Redbricks)가 주최·주관하는 친선 축구대회로, 북미 한인 여성 축구팀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Boston Cup 2026에는 개최 팀인 보스톤 FC 레드브릭스를 비롯해 뉴저지 스트라이커스(NJ Strikers)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FC 골든(FC Golden)까지 총 3팀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동부 지역은 물론 서부 지역의 한인 여성 축구 커뮤니티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친선 경기의 영역이 동부를 넘어 서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적인 대회로 넓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FC 레드브릭스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회다. FC 레드브릭스는 보스톤 및 그 레이터 보스톤 지역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축구팀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다양한 대회 참여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레드브릭스 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타주 한인 여성들까지도 참여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Boston Cup은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에도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FC 레드브릭스는 그동안 북미 한인 여성 축구팀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며, 여성들이 축구를 통해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왔다. 이번 Boston Cup 2026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대회이다.  
 대회는 오전 8시 15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첫 경기는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이후 참가팀들간의 경기를 소화하며 일정은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FC 레드브릭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스톤 지역사회와 함께 한인 여성 축구의 가능성과 열정을 나누고, 더 많은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p>	 <p><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p><b>EJ Kim</b>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p>	 <p><b>줄리 전</b> 978.494.2043 julle@bostonpremierrealty.com</p>	 <p><b>니키 박</b>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p>	 <p><b>피터 주</b> 617.780.7839 thepeterju@bostonpremierrealty.com</p>	 <p><b>지나 최</b> 978.866.3248 thepeterju@bostonpremierrealty.com</p>	 <p><b>이현주</b>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p>
 <p><b>사라 유</b>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p>	 <p><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p>	 <p><b>황수진</b> 617.538.6973 sujiwang1@gmail.com</p>	 <p><b>마사 송</b>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p>	 <p><b>미키 최</b> 413.507.1402 mickichoi@gmail.com</p>	 <p><b>손창배</b>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p>
 <p><b>최진민</b>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영순</b>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p>	 <p><b>한혜숙</b>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p>	 <p><b>차민영</b>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준균</b>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p>	 <p><b>메건 리</b>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p>
 <p><b>Tammy Woolfolk</b>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p>	 <p><b>Nancy Wang</b>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p>	 <p><b>Shirley Zhao</b>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p>	 <p><b>Vivian Yu</b>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p>	 <p><b>Xian Dole</b> 413.522.8979 xiangy2022@gmail.com</p>	 <p><b>Lu JIANG</b> 240.449.0117 jiangubox@gmail.com</p>
 <p><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p>	 <p><b>Rebecca Phu</b>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p>	 <p><b>Michael Somma</b>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p>	 <p><b>Linda Ta</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p>	 <p><b>Jun Wang</b>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p>	 <p><b>Lily Wang</b>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p>
 <p><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p>	 <p><b>빈센트 박</b>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p>	 <p><b>제이크 김</b> 871.956.0409 djakekim@bostonpremierrealty.com</p>	 <p><b>이상현</b>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p>	 <p><b>Mimi Belanger</b>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p>	



# 4월인데 보스톤 중간 집값 또 1백만달러 넘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역의 중간 집값이 4월 1백만달러를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AR)은 보스톤지역 단독주택 4월 중간 가격이 1백3만2천500달러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인상된 가격이며 지난 3월 중간가격 \$94만달러에 비해 10% 인상된 것이다.

GBAR은 대부분 49번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터보스톤 67개 시타운의 부동산 거래를 집계한다. 보스톤 지역 집값이 1백만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 6월이었으며 7월 다시 백만달러 이하로 떨어졌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집값은 6

월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4월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보스톤은 지난 봄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했으나, 다시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재고가 줄어들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금리는 장래 주택 매도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낮은 금리를 포기하고 높은 금리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장에 나온 매물은 지난해 1,873 채보다 5.5% 하락한 총 1,770 채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시장에 나온 2,025 채보다 적은 물량이다.

**〈전체 기사 읽기〉**  
3월의 매물도 2025년 3월에 대비했을 때는 13.4%나 줄어든 물량이었다.

GBAR의 조셀린 맥카시안 회장은 "4월의 급등한 주택 가격은 3월 단독주택의 적은 재고를 반영한 결과" 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의도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카시안 회장은 앞으로 이 같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너무 좌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주택 시장과 비교해 콘도미니엄 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도 무려 11.3%가 늘은 1,985채의 매물이 나왔다.

콘도의 중간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한 73만3천200달러였다.



# 제트블루, 7월 8일 맨체스터-보스톤 공항 운항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제트블루(JetBlue)가 오는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뉴햄프셔주 맨체스터-보스톤 공항(MHT)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 뉴햄프셔 맨체스터에 위치한 이 공항은 보스톤 로건공항에 비해 주차가 용이하고 저렴하며 교통혼잡도 없어 올랜도 여행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맨체스터-보스톤 공항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트블루의 운항 중단 소식을 전했다. 공항 측은 그간 항공편 운항 인센티브 제공과 대규모 마케팅 예산 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더욱 심화된 항공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지난해 1월 맨체스터 공항에 첫 취항한 이후 약 20개월 만에 철수하게 됐다. 주력 노선은 올랜도 직항이었으며, 지난 한 해 맨체스터 공항 전체 여행객의 10% 이상을 운송했다. 제트블루는 최근 운항을 중단한 스피릿 항공

**〈전체 기사 읽기〉**  
공이 비운 포트르더데일 공항 게이트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재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제트블루의 운항중단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공항은 올랜도행 직항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항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그간 제트블루와 함께 올랜도행을 맡아왔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여전히 평일에는 1일 1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일 2편씩 직항을 운영한다. 사우스웨스트는 맨체스터 공항 전체 운항 편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 공항의 최대 항공사로 자리잡고 있다.

7월 8일 이후 제트블루 기존 예약 승객은 가능한 경우 다른 제트블루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제트블루는 맨체스터에서 철수하더라도 보스톤 로건공항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운항을 지속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부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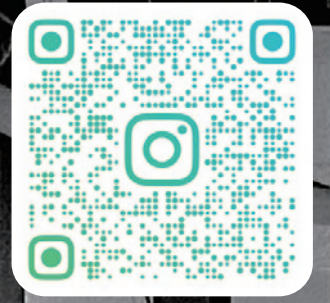
**보스톤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과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QR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정보를 확인하세요.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 시총 1위 엔비디아, 보스턴서 조용히 존재감 높여... 양자컴퓨팅이 핵심

▶▶1면에 이어서

와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앤디 우 교수는 "엔비디아가 미래에 대해 예측을 내놓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생태계 전체를 대신해 내리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엔비디아의 행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 분석가는 엔비디아가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이 "연구 인력을 양성할 자연스러운 장소"라고 평가했다.

BBJ는 엔비디아의 보스턴 진출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기업 PTC는 로봇 설계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공정에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협력 계약을 맺었다. 에어 소재 핵융합 기업 CFS는 자신들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디지털 트윈(가상 복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CFS는 엔벤처스로부터 벤처 투자도 받은 매사추세츠 기업 가운데 하나다. 엔벤처스는 2021년 설립된 엔비디아의 기업 벤처캐피털 부문으로, 보스턴 지역에서는 에너지에서 생형성 생물학, 신약 개발, 음악 생성 AI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투자해왔다. 엔비디아 측은 "매일 AI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엔벤처스가 투자한 매사추세츠 기업들 일부는 최근 몇 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머빌 소재 제너레이트:바이오메디슨(Generate:Biomedicines)은 AI로 단백질 기반 의약품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로, 최근 4억 달러의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케임브리지의 음악 AI 스타트업 수노(Suno)는 지난해 말 2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하며 24억 5,000만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CFS는 올해 1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보스턴에 북미 본사를 둔 네덜란드 양자 제어 시스템 개발사 큐블록스와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엔비디아의 GPU와 큐블록 프로세서의 통합 효율을 높여, 결국 기존 컴퓨터(클래식 프로세서)와 양자 프로세서 간 통신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큐블록스 북미법인 총괄책임자 그렉 카먼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양자 기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사의 협력도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 접촉"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카먼 총괄책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큐블록스 사업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가치는 아직 수치화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자 업계에서 엔비디아와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했다. 그는 "마치 제품 품질을 인정하는 '굿 하우스 킵핑 (Good Housekeeping) 인증마크'를 받는 것과 같다"며 신뢰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먼은 또한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팅에 어떤 가속기를 더할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가속기 가운데 하나가 양자"라며 "

양자는 AI용 데이터센터에 훨씬 적은 에너지 비용과 훨씬 적은 공간으로 가속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보스턴에 설립을 발표한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NVIDIA Accelerated Quantum Research Center, 이하 NVAQC)'는 AI 슈퍼컴퓨터와 선도적인 양자 하드웨어를 통합해 '가속 양자 슈퍼컴퓨팅'이라는 새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큐비트 노이즈 문제 해결부터 실험실 수준의 양자 프로세서를 실용적 장치로 전환하는 과제까지를 다루게 된다.

NVAQC에는 엔비디아의 576개의 블랙웰 GPU가 탑재된 최신 시스템의 슈퍼컴퓨터가 들어선다. 큐에라 컴퓨팅, 퀴티넘(Quantinuum), 퀴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 양자 컴퓨팅 분야 주요 기업들이 이곳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하버드 양자 이니셔티브(HQI)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엔지니어링 양자 시스템(EQuS) 그룹 등 주요 대학 연구진과도 협력한다.

루리아 분석가는 양자 분야가 엔비디아에는 여전히 장기 베팅이며, 더 시급한 과제는 자사

칩을 복제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진짜 강점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라며 약 625억 6,00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한 만큼 확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설립됐다. 구글보다 5년, 아마존보다 1년 앞선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국식 식당 데니스(Denny's)에서 초기 자본 4만 달러로 출발한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잘나간 미국 7대 빅테크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7)'의 한 기업이다.

큐블록스의 카먼은 엔비디아와 자신의 회사가 매사추세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업은 모두 매사추세츠와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을 양자 관련 기술 테스트베드의 이상적 위치로 본다"며 "이곳에는 인적 자본, 혁신 자본, 금융 자본이 있다. 그리고 MIT와 하버드뿐 아니라 매스로웰, 매스애머스트, 매스보스턴 같은 학술 파트너와 플랫폼이 모두 모여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 같이

#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자임을  
선대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문수사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인연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장소 :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문의 : 781) 224-0670



봉축위원회

# 24개 주 검찰, 간호 등 의료 전공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제한 규정에 소송

## 트럼프 행정부, 전문학위 11개 분야만 인정... 간호·물리치료·마취간호 등 제외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24개 주와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간호·의료관련 분야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레티시아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의료 시스템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다"며 "이 규정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핵심 직업에서 배제시키고, 지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종사자를 더 줄어든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주는 물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네바다 주 등이 참여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원 빅 뷰티풀 빌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학부생 대출 한도(간호학부 과정 포함)는 그대로 두었지만, 대학원생 대출 한도를 대부분의 경우 연간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대폭 축소했다. 이전까지는 대학원생이 과정 비용 전액까지 빌릴 수 있

### 〈전체 기사 읽기〉

었다.

이러한 한도 자체는 논란은 있지만 합법이다. 소송은 이 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을 시행하면서, '전문학위(professional)'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원 학위 범위를 축소했다. 전문학위의 경우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학위는 카이로프랙틱, 임상심리학, 치의학, 법학, 의학, 검안학, 정골의학, 약학, 족부의학, 신학, 수의학까지 다음 11개 분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간호학, 물리치료, 마취간호 등 많은 의료 관련 과정은 이 짧은 전문학위 목록에서 제외됐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학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의를 불법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의회가 입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많은 의료 및 기타 전문학위 과정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명시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교육부가 사용한 전문학위 예시 목록이 "1950년대

이후 변경되지 않은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당시에는 간호학을 비롯한 의료 분야 대학원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새 대출 한도가 "대학원 과정에만 적용되며, 4년제 간호학 학사 과정과 2년제 간호학 준학사 과정 등 학부 간호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 인력의 80퍼센트는 대학원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을 최종 확정하자, 미국간호사협회는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다.

제니퍼 멘식 케네디 미국간호사협회장은 성명에서 "현 교육부는 간호사들이 학업과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간호대학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는 지난 2월 자료에서 새 규정 하에서 간호학 학생들이 "고급리민간대출을 이용하거나, 고등 실무 교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프레스턴 쿠퍼는 새 한도에 대한 연 구에서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새 대출 한도를 둘러싼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한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을 받는 소수의 프로그램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대한 초당적 반발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지난주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랜디 파인 의원은 맥마흔 장관에게 "실제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맥마흔 장관은 대부분의 고등 간호 학위 비용은 여전히 새 한도 내에 있거나 그에 가까우며, 학부 간호 과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새 대출 한도와 논란이 된 규정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이 한도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들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주장대로 비용을 낮출지 지켜보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게 됐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홍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업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 매사추세츠 학생 성적, 전국 최고 ... 평균보다 0.47학년 앞서

### 스탠퍼드·하버드·다트머스 공동 <교육 성적표> 분석 매사추세츠 1위, 그러나 주내 빈부 학군 격차는 여전히 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거의 절반 학년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대 교육기회프로젝트(Educational Opportunity Project)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학생들은 전국 또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하버드대 교육정책연구소와 다트머스칼리지연구진도 함께 참여했다.

연구진은 '교육 성적표(Education Scorecard)' 프로젝트를 위해 전국 38개 주, 5천 곳이 넘는 학군의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수학·읽기 시험 점수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천500만 명의 학생 시험 결과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미국 전체 학군의 약 68%를 포괄한다. 다만 시험 거부 비율이 높거나 데이터 비교가 어려운 뉴욕, 일리노이, 메인, 버몬트 등 일부 주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매사추세츠의 전체 성적은 전국

#### <전체 기사 읽기>

평균보다 0.47학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험 점수는 6년간의 표본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매년 약 0.013학년 수준씩 완만하게 상승했다.

매사추세츠는 뉴잉글랜드 6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뉴햄프셔만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뉴잉글랜드 각 주의 성취도 차이는 모두 1학년 이내였다. 반면 메인주는 전국 평균보다 0.68학년 낮아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 전체로 보면 상황은 밝지 않다. 분석 대상 38개 주 가운데 2025년 기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주는 단 5곳뿐이었다. 미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0.5학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팬데믹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읽기능력 침체(reading recession)' 현상이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등의 학생

들은 전국 평균보다 1학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드러냈다. 학생이 어디에 살고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에 속해 있는지가 여전히 학업 성취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와 북부 중서부 지역의 성적이 대체로 높았던 반면, 남부와 남서부의 여러 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빈곤, 학교 재정, 주거 분리, 교육 자원 접근성 등과 얽힌 오랜 격차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 평균 성적이 주내부의 심각한 격차를 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유한 교외 학군이 저소득 도심·농촌 학군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기회프로젝트를 이끄는 Sean Reardon 스탠퍼드대 교수는 과거 연구에서 "매사추세츠의 학군은 가난한 지역이든 중산층 지역이든 부유한 지역이든, 전국의 비슷한 학군들보다 시험 성적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은 전국에서 학업 성취도 격차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라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교 교실의 도서 진열 모습

는 지적도 있다. 한 보고서는 뉴잉글랜드 각 주가 성취도가 높은 교외 지역에 더 많은 적정가격 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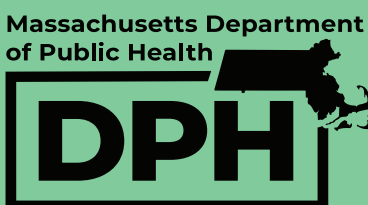
스탠퍼드 교육기회프로젝트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수백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표준화 시험 점수를 활용해 교육 기회를 측정할 미국 최초의 종합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가 공개한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는 주별 평균 학업 성취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 구성에 따른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

연구진은 "미국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깊이 불균등하다"며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교실 안팎 모두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각화 도구가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 학부모들이 지역과 소득, 교육 기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호르무즈 봉쇄 10주, 세계는 어떻게 석유 대란을 피했나

미국·캐나다·베네수엘라 수출 급증과 중국 수요 감소가 공급 공백 메워 메모리얼 데이 휘발유 5달러 돌파 시, 유가 대란이라는 섬을 치를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란 전쟁 발발 10주가 지난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5월 12일자 기사에서 현재의 이례적인 유가 안정이 미국과 중국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미국이나 중국 및 세계 각국의 석유재고가 줄어드는 경우 곧대가를 치를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매일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약 1,4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막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에 머물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129달러를 한참 밑돌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분석가들의 예측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가지 이유는 석유 트레이더들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끈질긴 낙관이다. 글로벌 기준 가격인 근월물(Front Month, 가장 첫번째로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브렌트유는 약 두 달 뒤 유조선에 싣릴 원유의 가격을 미리 고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

(전체 기사 읽기) 령이 합의 압박을 시사할 때마다 시장에는 추가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기를 미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물 가격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며칠 안에 선적될 원유 가격을 추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 (dated Brent)' 는 4월 초만 해도 근월물보다 25달러 비쌌지만, 이제는 그 격차가 단 몇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안정세를 가져온 두 가지 힘이 있다. 첫째, 걸프 지역 이외의 산유국들이 수출을 대폭 늘렸다. 선박 추척 회사 보텍사(Vortexa)에 따르면, 5월 10일까지 4주간 캐나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원유와 정제 제품 합쳐 하루 40만 배럴을 더 수출했다.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는 각각 하루 20만 배럴, 브라질은 10만 배럴을 추가로 공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하루 380만 배럴을 더 내보내며, 이 기간 순 석유 수출량이 하루 약 900만 배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수출 가동은 몇 주가 걸렸다. 새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원유를 생산하거나 비축유에서 빼내야 했으며, 송유관을 예약하고 적절한 원유를 혼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3월에는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 급등해 더 많은 유조선이 그 항로로 끌어들었다. 구매자들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의 대표 원유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할인 폭은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에 대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걸프 이외 지역에서 쏟아져 나온 원유 덕분에 공급 공백은 하루 약 800만 배럴 수준으로 좁혀졌다. 여기에 두 번째 힘이 더해진다. 같은 4주 동안 주요 석유 수입 지역들이 작년보다 하루 1,100만 배럴이나 적게 수입한 것이다. 중국의 수입만 하루 660만 배럴이 줄었다. 중국 정유업체들은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사기로 약속했던 화물 일부를 다른 아시아 구매자에게 되팔기까지 했다.

수입 감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일부는 수요 자체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원유 부족으로 아시아와 유럽 정유공장들은 가동률을 하루 약 400만 배럴 줄여야 했다. 걸프 지역에서 정제 제품 공급이 하루 440만 배럴 사라지면서 디젤, 휘발유, 항공유 가격이 60%에서 120%까지 올랐다.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였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구하지 못한 석유화학 공장들도 가동률을 낮춰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분석가들은 실제 수요 감소가 하루 500만 배럴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 이는 수입 감소의 상당 부분이 결핍이 아니라 신중함의 결과라는 의미다. 일부 구매자들은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것으로 보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의외로 원유 시장에는 일종의 '미니 공급 과잉' 이 생겼고, 이것이 브렌트유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의 육상 비축 원유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 이는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입 감소 폭이 워낙 커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마틴 라츠(Martijn Rats) 애널리스트는 지하 동굴에 비축돼 있던 원유가 지상으로 이동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비축유 방출은 곧 더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정유공장들의 정기 보수 시즌이 끝나가고 있어서다. 정부가 3월에 내렸던 제품 수출 금지를 완화하면서 정유제품 수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약 12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 재고를 보유해 2026년 상당 기간 수입을 줄여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업체 스파르타 커머디티스(Sparta Commodities)의 닐 크로스비(Neil Crosby)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올해 비축분을 전부 소진하려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일지 모른다. 미

국의 수출은 이제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유공장 보수 시즌이 곧 끝나고,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는 현재 수출용으로 배정된 하루 50만 배럴 이상이 국내용으로 돌려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차량 연료 재고가 사상 최고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원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갤런당 5달러는 2022년 마지막으로 돌파했던 선으로, 당시 운전자들의 부담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줬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유제품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부근을 맴돌 때만 해도 한 관계자는 수출 금지 가능성을 35%로 봤다. 지금은 그보다 높아졌고,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면 50%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소식통에서 나온다. 만약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게 된다.

수출 금지가 되든 안 되든, 어디에서나 석유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호르무즈가 계속 닫혀 있다면 세계 경제가 결국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editor@bostonkorea.com

## 이란 전쟁 유가 충격, 미국 경제에 450억 달러 격차 만들어

휘발유·디젤값 폭등에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 에너지 기업 주주들은 막대한 이익... S&P 500 에너지 섹터 32% 상승, 1분기 메이저 5개사 잉여현금흐름 84% 급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란 전쟁이 촉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이 미국 경제 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월 16일 보도했다.

OPIS 가격 데이터와 연방 수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디젤 비용으로 누적 약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연료비로 인해 저·중소득층은 소득 대비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했으며 이 결과로 소비여력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석유·가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챙겼다.

(전체 기사 읽기) 에너지주의 막대한 수익은 호황을 누리는 기업 실적 시즌을 뒷받침했고 인공지능 주도의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태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높아진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반대 급부로 소득이 급증한 고소득층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사상 최저 수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타나자 다른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유가 충

격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는 오히려 수출 사상 최대치라는 형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의 이사벨라 베버 경제학 교수는 "문제는 '미국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다"며 "미국의 소득 계층별로 보면, 이번 충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정말로 최상위 부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큰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버 교수는 유가 충격을 '부의 재분배' 에 비유했다. 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 중 약 50%가 미국 최상위 1% 부유층으로 흘러갔다.

미국산 원유 가격은 4월 1일 이후 평균 배럴당 약 99달러를 기록해 작

년 같은 기간보다 59% 올랐다. 호르무즈에서 에너지 수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따라 과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연료 가격은 아직 2022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주유에 쓰는 비중도 과거 수십 년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늘어난 세금 환급금 덕분에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 초기 국면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미스의 올리버 앨런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4일 고객들에게 "환급금 유입이 5월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료비 급등에 훨씬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운송부 통계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미국 항공사들이 작년 같은 달보다 항공유에 쓴 추가 비용은 약 13

억 달러에 달했다. JP모건은 개솔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026년 말까지 유지될 경우 미국인들이 작년보다 1,720억 달러를 더 쓰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에는 디젤 추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중·고소득층의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윙스톱(Wingstop), 전당포 체인 이지코프(Ezcorp) 등 저소득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기업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개솔린값 급등이 미친 충격을 거론했다.

주유소 자체도 영향을 받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3월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가구는 주유량을 전체적으로 줄였다.

hsb@bostonkorea.com

# 로건공항 6월부터 원격 터미널 보안 검색 시범 운영... 보안검색 시간 빨라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로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공항이 아닌 프레이밍햄에서 수하물 위탁과 TSA 보안검색을 모두 마치고 곧바로 게이트로 향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은 모바일리티 업체 랜드라인(Landline)과 손잡고 프레이밍햄 로건 익스프레스(Logan Express) 부지에 북미 최초의 공항 외 보안검색 시설인 '로건공항 원격 터미널(Logan Airport Remote Terminal at Framingham)'을 정식 개설한다. 이는 매스포트가 지난해 9월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원격 터미널을 이용하면 승객은 프레이밍햄에서 짐을 부치고 체크인, TSA 보안검색까지 모두 마친 뒤 전용 코치 버스에 탑승해 로건공항의 보안구역 안쪽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 델타항공 이용객은 터미널 A의 A18 게이트 부근에서, 제트블루 이용객은 터미널 C의 C8 게이트 부근에서 하차한다. 부친 가방들은

버스에서 항공기로 직접 옮겨지게 된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델타항공과 제트블루 항공편 이용객만 원격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 6월 한 달간 보스톤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약 51%가 두 항공사를 이용하므로

요금은 기존 로건 익스프레스 버스와 동일한 편도 9달러이며, 17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프레이밍햄 부지의 일일 주차비는 7달러로, 최대 46달러에 달하는 로건공항 직접 주차비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예약은 출발 90일 전부터 90분 전까지 매스포트 웹사이트(massport.com/remoteterminal)에서 할 수 있고, 시범 기간 중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프레이밍햄 로건익스프레스에는 4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하차도 가능하다. 버스는 시간당 한 대씩 오전 시간대에만 운행되며, 프레이밍햄에서 로건공항까지는 약 45분에서 60분이 소요된다.

### 〈전체 기사 읽기〉

매스포트 측은 프레이밍햄 시설에 공항과 동일한 수준의 TSA 체크포인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매스포트의 피터 하우(Peter Howe) 프로젝트 매니저는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과 수하물은 프레이밍햄 시설에서 TSA에 의해 검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색 기준과 절차는 로건공항 본 체크포인트와 동일하며, 검색이 이뤄지는 장소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 매스포트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매스포트는 약 250만 달러를 투입한다. 재원은 로건공항을 이용하는 택시, 리무진,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에서 충당된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브레인트리(Braintree), 댄버스(Danvers), 우번(Woburn) 등 다른 로건 익스프레스 거점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원격 터미널 외에도 로건공항은 보안검색 대기시간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3월 터미널 B에서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현재 공항 내 7개 보안검색대로 확대되어 로건공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대기 시간을 제공한다. 이용객은 터미널 A, B, C, E별로 일반 검색대와 TSA 프리체크(PreCheck) 대기시간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로건공항의 보안 검색은 거의 정체없이 10-20분 사이에 통과할 정도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판 미니 보냉 토트백 5월 20일 출시

6가지 디자인 한정 수량, 가격은 3.99달러... 매년 매년 행렬 이어지는 인기 상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레이더 조가 여름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미니 보냉 토트백 컬렉션을 출시한다.

피플(PEOPLE)지에 따르면 트레이더 조는 5월 20일 수요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한정 수량으로 여름 편(Summer Fun) 미니 보냉 토트백을 판매한다. 가격은 개당 3.99달러다.

이번에 출시되는 보냉 토트백은 총 6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빨강과 분홍, 파랑과 초록 조합의 줄무늬 디자인 두 종류와 아자수가 그려진 트레이더 조 매장 실루엣 디자인 네 종류(초록, 주황, 파랑, 보라)가 있다.

크기는 가로 10인치, 세로 6인치, 높이 6인치로 1.5갤런 용량이다. 지퍼가 달린 상단 부분과 보강된 손잡이 두 개가 특징이다.

트레이더 조 대변인은 "많은 고객들이 학교나 직장에 점심을 가져갈 때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수량이 한

### 〈전체 기사 읽기〉

정대 있으니 가능할 때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트레이더 조의 미니 토트백 시리즈는 2024년 3월 첫 출시 이후 매년 출시 때마다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299달러에 판매된 미니 캔버스 토트백은 출시 직후 매진됐고, 이베이에서는 4가지 색상 세트가 999.99달러에 재판매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같은 해 9월 추가 출시된 미니 토트백 역시 하루 만에 많은 매장에서 매진됐다. 이후 할로윈 색상, 봄 파스텔 색상, 더 작은 미니 사이즈 등이 출시될 때마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2025년 4월 파스텔 버전 출시 때는 일부 고객들이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024년 출시된 검은색 보냉 미니 토트백 또한 음료 6캔이 들어가는 크기로 인기를 끌었으며, 일부 소비자들이 한 쌍을 155달러에 재판매하기도 했다.

##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보스톤코리아 뉴스,

###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초이스 간판



###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주 여호와와 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1-3)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다. 바로 ‘마음의 상처’이다. 그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안의 아픔, 배신과 외로움, 실패와 좌절, 죄책감과 후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 등 말이다

.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보다 마음이 더 병들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사역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약한 사람, 여린 사람, 가여운 사람, 상처입은 사람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엇이든 척척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밝은 사람, 웃는 사람 등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친 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회복될 제자를 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보다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신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가까이 가셨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자, 죄인, 눈물 흘리는 자들 곁에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상처는 숨길수록 깊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숨긴다. “괜찮습니다”, “견딜 만합니다”, “버틸 만합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등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다윗도 그랬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괴롭다고 말했고, 두렵다고 말했고, 눈물 난다고 말했고, 무너진다고 고백했다. 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이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한다. 예레미야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고, 예수님도 우셨다. 눈물은 믿음 없음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예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세 번 부인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성경은 말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주님은 실패를 들추기보다 사랑을 회복시키셨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할렐루야!!

5월 24일 - 5월 3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쥐띠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b></p> <p>●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취주니 밝고 희망적인 활력이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 애정: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기일. 28, 2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소띠   이해하는 시선으로</b></p> <p>●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말하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6일 기일. 24, 3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범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b></p> <p>● 운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 금전: 급히 서둘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9, 30일 기일. 25, 2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토끼띠   희망의 끈을</b></p> <p>●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버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4, 25일 기일. 26, 3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용띠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b></p> <p>●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버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 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30일 기일. 25,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뱀띠   생각을 바꿔서 보면</b></p> <p>●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력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7, 29일 기일. 25, 2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말띠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b></p> <p>●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이 늘어납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유유부단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8일 기일. 26, 2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양띠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b></p> <p>●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5, 29일 기일. 24,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원숭이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b></p> <p>●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살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행해주는 마음에서 서로 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6, 30일 기일. 25, 2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닭띠   흥가분한 마음으로</b></p> <p>●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7, 30일 기일. 26, 29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개띠   자극제로 여겨야</b></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원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새로이 연구하 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9일 기일. 27, 30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돼지띠   주위를 잘 살피야</b></p> <p>●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이 애쓴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피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기일. 25, 28일 주의.</p>



# 50th Anniversary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백우회 창립 50주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초대

# 백우동인전

Baekwoo Alumni Art Exhibition: Calligraphy and Beyond



2026. 5. 25. MON - 29. FRI

St. Paul's Episcopal Church :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02446

2026. 5. 30. SAT

뉴잉글랜드 한국학교(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장암 로봇수술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신장암의 수술 방법 중 출혈도 줄이고, 기능은 살릴 수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 승빈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 히 알아보려고 한다.

신장암은 과거 비교적 드문 암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장암 환자는 약 3만9천 명으로, 불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비만, 고혈압, 흡연 등 위험요인의 증가, 그리고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다른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환자에서 혈뇨나 옆구리 통증, 복부

덩어리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장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CT나 MRI 같은 정밀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크기와 위치, 주변 조직 침범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후 병기와 환자의 전신 상태, 신장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초기 신장암에서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수술은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신장의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신절제술과 신장 전체를 제거하는 근치적 신절제술로 나뉜다. 최근에는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3차원 고해상도 시야와 정교한 기구 조작이 가능한 신장암 로봇수술이 활발히 시행되며 더욱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3차원 고해상도 시야를 통해 종양과 정상 조직의 경계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손떨림이 보정된 기

구를 이용해 섬세한 절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양은 정확히 제거하면서도 정상 신장 조직과 혈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소침습 수술 방식으로 절개 범위가 작아 출혈과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도 환자에게 중요한 이점이다. 입원 기간이 짧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점에서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신장암은 증상이 나타난 뒤 발견되는 경우가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무증상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예후를 좌우한다.

신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기본이며, 비만과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적인 예방 전략이다. 그러나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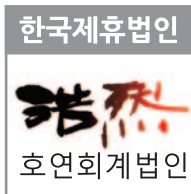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암 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한 수술을 통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현재 신장암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혈 줄이고, 기능 살리고” 신장암 로봇수술, 환자 만족도 높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The Place to Create Memories!



### MAIN STAGE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http://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